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변함없이 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2012년 임진년을 뒤로 하고, 대망의 2013년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다.

얼마전 향후 5년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와 책무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동화적 통합에 새 대통령께서 큰 기여를 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면 제2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며, 2월에는 사법시험이 치러진다. 지금껏 열심히 학습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한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해도 3월 무렵이면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재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소위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양성시스템은 2017년을 끝으로 로스쿨시스템을 통한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된지도 5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고 기존의 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주장되고 있다.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네 분의 후보들조차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정 상 훈
(월간 고시계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이러한 로스쿨제도 비판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들을 분석한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동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88%가 수도권출신이며, 이중 3분의 1이 소위 강남 3구 출신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서울지역 소재 로스쿨의 입학자들 분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한 순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비만 하더라도 2000만원 내외가 된다. 이러한 액수는 학자금대출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등 생계곤란 장학금 등을 통해서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대학들조차 이렇게 등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원제한으로 인해 소수의 학생들만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학교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이를 감당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불멘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서민계층의 법조 진입의 용이화를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무릇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받아들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우리보다 앞서 일본 또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로스쿨제도를 꾸려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